

“마음모아 지역경제 살려요”

무주군, 지역사랑 실천캠페인 개최

무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5일에는 장날을 맞은 안성면 덕유산정터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소비자보호센터 무주군지부, 안성면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50여 명이 함께 지역사랑실천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 모집을 비롯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

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시책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상인들은 “무주에서 만날 수 있는 상품권이 곧 발행이 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며 “상품권이 통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간 영등이나, 김천, 금산, 대전, 전주 등 인근 지역으로 가던 돈이 무주로 모일 테니 좀 나아지지 않을까”며 기대를 보였다. 또 다른 상인이 모 씨(62, 안성면)는 “오늘 보니 영세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많은데 몰라서도 활용을 못했던 것 같다”며

“내용들을 잘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이용해 보겠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무주사랑 상품권은 7월부터 통용 예정으로, 원활한 유통을 위해 현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관내 6개 읍면사무소에 창구를 두고 접수를 진행 중이며 홍보 마케터를 채용해 일대일 방문·접수도 병행한다. 캠페인 현장에서도 가맹점 등록 서류 배부·접수를 진행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노력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돕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적 공제 제도로, 무주군은 신규 가입자에게 매달 1만 원 최대 1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가입일로부터 1년 / 신청은 관내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한다.

카드수수료 지원(2019. 6.~)은 연매출 8천 8백만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 6개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을 받는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1년 거치 4년 상환)을 받을 수 있다. s /무주=전문선 기자



15일 안성면 덕유산정터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소비자보호센터 무주군지부, 안성면 주민자치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 지역사랑실천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무주 택시 기본요금 5백원 인상

경영개선·서비스 향상 기대

무주군 택시 기본요금이 2013년 3월 이후 6년 만에 인상된다. 무주군은 지난 12일 열린 지방불가대책위원회에서 현행 3,5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500원 인상(14.47% _ 전라북도와 동일)하는 안을 확정했다. 무주군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은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금 조정안을 기준삼은 것으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km까지) 4,000원에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이다.

심야(00:00~04:00) 시간과 사업구역의 지역을 갈 때는 기존대로 20%의 할증운임이 적용되며, 복합할증은 63% 적용된다. 호출료는 1천 원을 받는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행정 김기범 팀장은 “현실을 반영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은 물론, 고객 서비스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택시이용객은 물론, 운송사업자 모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군에 따르면 인상요금 시행은 행정예고가 실시되고 난후 내달 7일 00시부터이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행날짜에 맞춰 변경된 택시 운임·요금 미터기를 점검한 후 변경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식품 전문인력양성 교육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박충법)는 관내 인·홍삼 가공기업 관계자들과 관심 고객들을 대상으로 식품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식품 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식품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군의 예

산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식약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인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이날 9일부터 5월 9일까지 진안홍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5주간 총 10회에 걸쳐 40시간 진행된다.

교육은 HACCP 정기 교육을 비롯한 식품위생법·식품공전 해설, 자가품질검사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 이상 수료한 교육생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은 진안홍삼연구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현장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티바이오텍은 천천면 월곡리 이티바이오텍 연구소에서 한우개량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티바이오텍, 한우개량 연구발표회

활성화 방안·우수사례 정보 공유

이티바이오텍(대표 정연길)은 최근 천천면 월곡리 이티바이오텍 연구소에서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개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장영수 군수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우개량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한우개량 체계와 발전방향, 한우 미래를 위한 현장연구 발표, 한우개량 활성화 방안 및 우수사례에 대한 각 기관들의 가족개량 정보 공유 등이 진행됐다.

정연길 대표는 “이번 연구발표회

를 통해 대한민국 한우 개량 등 축산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티바이오텍은 앞으로도 한우개량을 위해 연구를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티바이오텍과 장수한우지방공사를 통해 장수한우 우수 유전자 구축 및 개량을 선도하고 한우 육종 농가 육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 등 장수한우개량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진안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총 14만1,418필지에 대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지가 산정을 완료했다.

또 지난 12일까지 4명의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된 상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자료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매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기간을 갖고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각 읍·면사무소나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자기열람부를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으로 연락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구제역 백신 총력

장수군은 15일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오는 5월 4일까지 추진한다.

접종 대상은 소·염소 사육농가 1,058 농가 3만2,427두며,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농가 입회하여 공수의가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회하여 자가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염소는 보장만 2개 반을 편성해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현재 장수군은 구제역 유입방지 및 안전차단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송아지 수시접종을 하는 등 누락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접종 완료 4주 후에는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을 확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 80%, 염소 60% 미만의 항체 형성율을 보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 형성율이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 및 1개월 단위로 재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 한 마리도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구제역의 신속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진안초 구강보건실 운영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주 1회 방문 서비스 제공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는 어린 이들의 구강 관리를 위해 진안초등학교 전교생 260명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성장기 초등학생들에게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구강질환의 조기관리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달부터 12월까지(방학기간 제외) 매주 목요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주 1회 학교를 직접 찾아가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소도포, 전문가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 및 올바른 이닦기 지도, 치아 홈 메우기, 구강위생용품 선정, 교환기 유지발거, 초기충치치료, 2차 진료 기관 의뢰 등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구강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구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조기 구강병 예방,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여러 효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성을경 소장은 “성장기 어린이의 구강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보건소는 지난해 구강건강교실로 구강건강교육과 함께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검진에 295명, 타 치과 의료기관 의뢰 39명, 충치 및 구강 치료 10명 등 조기 구강병 예방에 도움을 줬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